

## 다이쇼인 절: 불상 나미키리 부동명왕상

조쿠간도에 안치되어 있는 부동명왕(불교의 오대명왕 중 하나)상은 다이쇼인 절의 본존입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신자를 수호하고 부모와 같은 깊은 애정으로 신자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진언 밀교의 중심이 되는 부처인 부동명왕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오른손에는 검, 왼손에는 오랏줄을 들고 악귀와 적에게 당장이라도 분노를 터뜨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조쿠간도의 나미키리(일본어로 파도를 가른다는 뜻) 부동명왕은 부동명왕이 ‘파도를 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사람의 수호자로 숭상받는 나미키리 부동명왕은 9 세기의 전승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이쇼인 절을 창건한 구카이(774~835)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일본으로 돌아온 길에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구카이는 신성한 나무 조각으로 부동명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무시무시한 모습의 부동명왕이 파도를 잠재운 덕분에 구카이는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6 세기의 무사인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나미키리 부동명왕을 숭상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나미키리 부동명왕을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자신의 배에 실어서 모셨습니다. 오늘날 다이쇼인 절에 안치되어 있는 나미키리 부동명왕상은 히데요시가 봉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왼손에는 주먹을 쥐고 검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꽂꽂이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의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등 뒤 붉은 불꽃이 마치 불상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붉은 불꽃은 정화와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의 제거를 상징합니다.